



특허심판, 연내 6개월 이내로 단축

우 리나라 특허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판을 하게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에 14개월 걸리던 특허심판이 4년 만에 절반 이하인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일본의 7.8개월('06년 기준)보다 빠른 수치이며 그간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미국의 6개월과 동등한 수치

여서, 특허심판처리기간에 있어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특허청은 작년 말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한 데 이어, 특허심판 처리기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성을 보유하게 됐다.

소액 위조상품신고도 포상금 지급

작파라치 포상 줄고, 국민인식제고 역할 톡톡히 하도록

일 명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을 신고했을 경우 지급되는 위조상품신고포상금 제도가 2008년 1월 1일 개정되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작년 7월, 강원도에 사는 강 모 씨는 정품시가 2,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위조상품 가방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신고했으나, 정품가액 기준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종전의 포상금 규정 때

문에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10건의 위조상품을 신고해 총 2,900여 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이 모 씨의 경우, 연간 1인당 포상금 상한액이 줄어들에 따라 1,500만 원만 지급 받게 된다.

서명만으로 특허출원서 등의 제출 가능

특허출원서 등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 가능

특 허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특허고객이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기재하여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금융거래를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에 서명만으로 가능하고, 일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도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되는 등, 민간 및 행정부문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서명사용 추세를 반영하여 특허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 정부기관 보안업무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국가정보원 주관, 2007년도 보안업무평가회의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국가정보원이 중앙부처를 포함한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정부기관 보안업무평가'에서 청단위 기관 중 처음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중앙부처 중 최초로 기업형 책임 운영기관으로 전환한 뒤 정보전쟁의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인 미공개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해왔다.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보호범위 넓어져

특허청, 의료진단 관련기술 특허심사기준 개정

오래부터는 의료진단방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의료진단방법과 관련된 발명 중 실질적으로는 의료진단방법으로 볼 수 있어도 의사의 직접적인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대상으로 인정키로 하고, 이를 반영한 개정 '의료·위생분야 심사기준' 및 '의약분야 심사기준'을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 종합대책 발표

특허청은 지난 1월 24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한·미 FTA 등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급증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동 대책은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출원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 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범정부적으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소비자 인식확산 및 단속강화,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담고 있다.

※ 특허출원건수('07년)는 173천 건이며, 산업재산권 전체로는 381천 건

제공 특허청